

내년 총선 전초전된 광주 서울 보선

새정치 '뒤틀리사수' 총력... 천정배 등 야권재편 시도 새누리, 정승 식약처장 영입 '西進' 광주 공들이기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야 대진표

1. 서울 관악을	새누리당 신정민 (새정치민주연합)
2. 광주 서구을	새누리당 정승 (새정치민주연합)
3. 경기 성남중원	새누리당 김미희 (무소속)
4. 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신동근 (새정치민주연합)

이동영 (정의당) 전 서울시장, 이상규 (무소속) 전 의원, 강은미 (정의당) 전 광주시의원, 조영택 (무소속) 전 법무부장관, 전정배 (무소속) 전 법무부장관, 조남일 (무소속) 전 민주노동당 광주전남본부장, 신상진 (무소속) 전 의원, 정환석 (지역위원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원호 전 강화군수, 신동근 지역위원장, 이경재 전 의원, 개인석 전 새누리당 대표 정책보좌관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야권의 뒤틀리 광주 서울 선거구에 여야 후보는 물론 새로운 야당을 모색하는 진영의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재편 가능성과 함께 새누리당의 '서진(西進)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고심 끝에 정승 식약처장 영입을 결정하고 서구 을에 공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물 대결을 통해 야권의 뒤틀리 광주에서 야권 분열 틈을 타 내심 '제2의 이정현'을 배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정현 의원이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올렸던 선거구인 만큼 중앙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는다면 정 처장의 '약진'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핵심 조직인 중앙위원회 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광주에서 갖는 등 벌써부터 광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뒤틀리 사수'를 위해 총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당의 중진이었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만약 이번에 패한다면 뒤틀리 광주 정치 지형이 깨져 신당을 추진중인 '국민모임' 측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 정 장관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는 천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은 큰 위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조영택 전 의원이 지난 14일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광주시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들어갈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조 후보의 이력 등을 감안할 때 승리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역민의 반감과 지명도가 높은 무소속 후보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후보 추대가 향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의당은 강은미 전 광주시의원을 후보로 내세웠다. 막판 야권연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등과의 4차 연대에 주력하면서 광주에서의 새로운 야권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천정배 전 장관과는 후보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 구기를 하고 있다.

천 전 장관의 득표력도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거리다. 상대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명도의 장점을 갖고 있는 천 전 장관은 시민단체가 내건 이른바 시민후보를 내심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대진영은 물론 일각에서 제기하는 명분없는 탈당, 철세 정치인으로서의 변질 등의 비판은 남아야 할 산이다.

이밖에 통진당 해산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선에 조남일 전 민주노동당 광주전남본부장이 무소속 후보로 나선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서구를 보선은 사실상 내년 광주의 정치 지형 변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靑회동 앞둔 文, "빈손은 안돼"

전직 당대표들 조언 듣고 주말·휴일 준비 만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주말과 휴일 준비 작업을 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의지를 불태웠다.

이번 회동 결과가 2017년 대권 재수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는 성격도 가미돼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영수회담 때마다 있었던 '빈손'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담 결정 다음날인 지난 13일 전직 당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조언을 경청한 문 대표는 주말인 14일에는 공식 입장을 잡지 않고 실무진 보고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며 예습에 몰두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주제로 열리는

15일 저녁 최고위원회 워크숍에서도 당의 기초뿐만 아니라 이번 회담 의제와 전략 등을 함께 논의했다. 또 당 정책위원회와 전략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영수회담 준비 실무팀을 통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비교적 의견차가 적은 의제와 그에 대한 당의 요구사항을 정리 중이다.

구체적인 의제 선정과 합의 가능성 타진을 위해 새정치연합은 영수회담에 앞서 금명간 청와대와 물밑에서 사전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테이블에 올릴 유력한 의제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이 꼽힌다. 구체적인 목표치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10% 이상으로 요구해 관철시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당직인선 결국 '계파 나눠먹기'

상근부대변인 7명 등 인선...공천혁신추진단장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상근부대변인과 사무부총장, 특별기구 단장 등 당직 인선을 완료했다.

지역별 내부 신경전 끝에 결국 '계파 나눠먹기'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상근부대변인으로 김정현 현 수석부대변인, 허영일 현 부대변인, 강선아 전 서울시장 대변인, 강희용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캠프 정책대변인, 김희경 전 대표비서실 부실장, 유승화 전 청와대 행정관, 한정우 전 문재인 전대캠프 공보팀장 등 7명을 확정했다.

각 최고위원이 추천한 후보자들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총선 3명이었던 상근부대변인 숫자를 7명으로 늘렸다.

사무부총장으로는 대외협력담당 임재훈 전 조직사무부총장, 민원담당 송찬식 전 총무국장, 직능담당 박동규 전 원내대표특보, 원외담당 김경수 현 강릉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담당 허성우 전 경남

도당위원장 등 5명이 각각 선임됐다. 앞서 임명된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과 김광영 조직사무부총장을 합치면 부대변인과 마찬가지로 총 7명 규모다.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설치된 디지털소통본부장으로는 문 대표의 대변인격으로 활동했던 유호중 의원이 선임됐다. 내년 총선을 결정할 공천혁신추진단장은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당초 거론되던 박영선 전 원내대표 대신 범진위 중진인 원혜영 의원을 임명했다. 네트워킹담당추진단장에는 정세균계인 최재성 의원이 임명됐다.

이밖에 교육연수원장에 안민석 의원, 당헌당규개정정책위원회에 정성호 의원이 각각 기용됐다. 전방위 유승희 추미에 최고위원은 각각 '민주당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이은 소통 행보... 박대통령 달라지나

5부 요인 청와대 회동이여 내일 여야 대표 초청 만나 "통치 스타일 변화 없으면 이벤트 수준에 머무를 것"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불통' 이미지가 국정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상황 인식의 결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5부 요인을 청와대에서 만났고, 17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난다. 중동 4개국 순방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하고 이를 '경제 활성화'로 현실화하기 위해 각계의 협력을 당부한다는 취지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소통에 신경을 쓴다는 신호를 처음 보낸 건 두 달 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티타임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박 대통령과 청와대 운영 스타일을 볼 때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박 대

통령은 또 불통 이미지의 근원으로 지적받아온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가며 지지율 회복을 시도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

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의 3월 둘째 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반면 박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2%포인트 하락했다.

연초 답답세 인상과 연말정산 후폭풍 등으로 급락한 지지율이 일단 소통 행보와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등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지지율 회복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 등 3년차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력을 얻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련의 움직임이 통치 스타일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청와대가 부처 인사나 사소한 정책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인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는 15일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일방통행 리더십에 변화가 없다면 그동안 소통행보는 이벤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1위 최고의 새마을금고

2015 광주시 골목상권 정책자금대출 출시!!

광주광역시 ♥ 서양새마을금고 ♥ 광주신용보증재단 = 협약기금

**각종 도·소매업/음식점
주점업/서비스업 등**

식당, 학원, 노래방, 당구장, 카센터, 사진관, 컴퓨터수리, 세탁소, 세차장, 미용실, 피부관리, 방앗간, 스포츠시설, PC방, 전통시장상인 등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신분증

연 이 율 **1.25 ~ 1.4%**

대출기간 **3년/5년**

최 고 **2천만원**

※ **36억 선착순 접수**
(기존 대출자도 가능)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더 행복한 우리

서양새마을금고